

만주지역에서 활동한 전북출신 독립운동가 연구

김주용*

목 차

- | | |
|--------------------|---------------|
| 1. 머리말 | 5. 삼부 활동과 전북인 |
| 2. 신흥무관학교와 강한년의 활동 | 6. 맺음말 |
| 3. 청산리대첩과 전북인의 활동 | 참고문헌 |
| 4. 무장투쟁과 군자금 모금 활동 | <Abstract> |

국문초록

이 글은 만주지역에서 활동한 전북출신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무장투쟁의 선봉에서 신흥무관학교 운영에도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독립운동사에서 가장 뛰어난 승전이었던 청산리 전투에도 참여하였다. 이들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 글에서는 그들의 전 생애 가운데 만주지역의 활동을 복원하려고 했다. 신흥무관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강한년, 청산리 전투를 승전으로 이끌었던 고평과 강문주 등을 역사의 전면에 배치하고자 했다. 전북출신 독립운동가들은 1920년대 만주에서 활동했던 각 종 독립운동단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군자금 모금을 위해 국내를 오가며 독립운동 조직 유지를 위해 힘썼다.

주제어 : 전북, 만주지역, 강한년, 강문주, 고평, 군자금 모금

*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교수, E-mail: kimsu8590@wku.ac.kr

1. 머리말

2020년은 청산리 전투 100년이 되는 해이다. 그 전투에서 상징적인 인물은 주로 김좌진, 홍범도, 이범석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수천명의 독립군들이 이루어낸 합작품이 청산리 전투라면 몇몇 인물을 조명하는 데 그친 것이 현재 한국독립운동사의 현실이다.¹⁾ 아직까지 출신지별 또는 지역별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청산리 전투에 참여한 인물 가운데 高平은 전북출신으로 그나마 조금 알려진 편이다.²⁾

지금까지 확인된 만주에서 활동한 전북출신 독립운동가들은 14명이다.³⁾ 이들 가운데 청산리 전투 참여자뿐만 아니라 1930년대까지 무장투쟁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개한 인물들도 다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만주지역에서 활동했던 전북출신들의 독립운동을 발굴하고 나아가 그 성격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특히 한국독립운동사에서 가장 큰 전과라고 할 수 있는 청산리 전투에서 전북출신 독립운동가들이 발휘했던 독립운동의 투혼을 소환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신흥무관학교 출신으로 청산리 전투에 참여했던 강한년 등의 생애를 복원하려 한다.⁴⁾ 신흥무관학교는 출발부터 군사적 훈련을 교과목으로 결정할 만큼 군사학교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신민회 인물들이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막대한 재산을 투자하였고, 당시 학교 교원들의 상당수 출신이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라는 점이 군사학교로서의 기능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교감 윤기섭은 정신 무장을 하루도 빠짐없이 조회시간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매일 파저강을 구보하는 체력훈련을 통해 충기를 비롯한 무기부족을 대체하였던 것이다. 신흥무관학교의 설립 목적 자체가 독립군 인재양성

1) 청산리에 참여한 인물 연구는 김좌진, 홍범도, 이범석 등을 위주로 한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청산리 전투에 참여했던 구성원 분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산리 전투를 보도했던 중국 언론의 보도 양태에 대한 연구도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 양만정, 1988, 『抗日 獨立 運動家 高平의 生涯와 業績』, 『全羅文化研究』 제2집; 장세윤, 2019, 『전북출신 독립운동가 고평의 생애와 독립운동』, 『전북학연구』 1 참조.

3) 강문주(姜文周), 강한년(康翰年), 고평(高平), 김상술(金相述), 김영현(金寧炫), 김종철(金宗喆), 김춘배(金春培), 김판두(金判斗), 박봉래(朴奉來), 박운경(朴雲景), 차병선(車炳先), 채세윤(蔡世允), 홍순갑(洪淳甲) 등이다. 이 글에서는 자료의 한계상 모든 인물을 다루지는 못하였다. 추후 보완하고자 한다.

4) 해방 이후 전북 익산지역 제헌국회의원을 역임했던 襄憲은 지역사회에서 비교적 잘 알려진 인물이다. 그가 신흥무관학교 출신이었다는 점은 국가보훈처 공훈록 등 관련 자료에도 자주 등장한다. 하지만 전북 옥구 출신이자 독립운동가였던 그의 매부 강한년의 소개로 신흥무관학교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에 있었으며, 직접 농사도 병행하였다. 1912년 신흥무관학교는 통화현 합니하로 이전하면서 학생, 교사 등 구성원들의 공동체가 더욱 공고히 되었으며, 직접 농사도 지었다. 이는 백서농장 설립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와 같이 만주지역은 독립전쟁의 현장이었으며, 이곳에서 활동했던 전북출신 독립운동가들의 생애를 원하고 이를 통해 해외지역 전북출신 독립운동가들의 연구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 연구에서는 이들에 대한 활동을 추적함으로써 전북출신들의 독립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정립하고자 한다.

먼저 만주에서 활동했던 전북출신의 독립운동가들을 국가보훈처에서 발간한 공훈록을 참조하여 그 활동양태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시기별로 1910년대~20년대, 1930년대를 구분하여 독립운동에 투신한 것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먼저 문헌적 고찰과 함께 전북지역에 산재해 있는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기념물과 그들이 활동했던 만주지역 조사를 통해 시공간 자료를 확보하려고 하였다. 문헌자료로는 각종 회고록 및 일제측 자료와 개인 자료를 집중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만주지역에서도 서간도, 북간도 지역 독립운동단체에서 활동했던 경력을 중심으로 개인과 단체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전북출신들의 일정한 패턴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후손들이 소장하고 있는 문장 자료 및 구술자료 등도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이들 가운데 신흥무관학교 출신이며 1920년대 이후 익산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 배헌의 매부였던 강한년의 경우처럼 친인척의 독립운동 투신도 조명하고자 한다. 요컨대 이 글에서는 만주지역에서 활동했던 전북출신 독립운동가들의 지역, 출신, 독립운동 분야 등에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에 주목하면서 이들의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

2. 신흥무관학교와 강한년의 활동

1905년 8월 러일전쟁이 종식되면서 일본제국주의는 한반도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그해 11월 을사늑약을 체결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제는 만주지역에서의 특수권익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문호 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일제가 북간도 및 북만에서 세력 확장을 위한 시도는 남만주 보다 열강들의 관심이 적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으며, 또한 러시아를 견제하는 길로 인식하였다. 일제는 한반도에서 거둔 성공적인 방법을 남만주에도 적

용, 남만주를 대한제국과 같이 일본의 특수권의 지대로 만들고 열강들이 중국 본토에서 향유한 특권에도 맹렬한 기세로 침투하려 했다.⁵⁾ 일제의 공격적인 만주에 대한 특권 확대는 1915년 21개 조약으로 표출되었다.⁶⁾ 북경에서 조인된 「남만주 및 동부내몽고에 관한 조약」(일명 만몽조약)은 일본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예측이 더욱 심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일본인 이주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도 하였다.⁷⁾ 만몽조약으로 일본은 새로운 특권 3개를 얻었다. 먼저 일본은 여순, 대련의 조차권을 1997년까지 보장받았으며, 만철의 반환기한도 2002년까지 연장하였다. 또 일본인의 자유로운 거주가 인정되었으며, 일본인은 상공업 등에 자유롭게 종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만몽조약의 체결로 이주한인의 토주소유권에 대한 소모적 논쟁이 야기되었다. 만몽조약에 명시된 제2조와 실제 이를 둘러싼 청일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토지소유권은 편법으로 획득할 수밖에 없었다. 만몽조약을 둘러싼 중국 군벌과 일제의 해석 차이는 이주한인의 토지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내릴 수 없게 만들었다. 이에 일본 제국의회에서는 만몽조약의 강력한 시행을 일본 정부에 촉구하였다. 만주지역에서 일본인은 상조권을 획득해야 토지소유권이 실현되었는데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⁸⁾ 일제는 조약 2조에 규정된 상조권(商租權)⁹⁾에 의한 방법으로 토지를 경작하거나 귀화 입적하여 토지소유권을 획득할 수밖에 없었다. 이주한인은 중국인과 상조(商租)계약을 맺어 토지를 경작했으며 상조기한은 5년 내지 10년으로 가장 긴 경우는 30년까지 연장된 경우도 있었다. 5년 내지 10년 만기의 상조금은 토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1상(晌)에 10원 내외였다.¹⁰⁾ 이와 같이 합법적 토지획득 수단의 선결조건인 귀화입적은 중국 측에서 적극 추진하였으며, 한인들도 정착과 안정을 위해 귀

5) 구대열, 1995, 『한국 국제관계사 연구』 1, 역사비평사, 152쪽.

6) 만몽조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양국은 여순 대련의 조차기한 및 남만주철도 및 안봉철도에 관한 기한을 99년으로 연장한다. 제2조 일본국신민은 남만주에서 각종 상공업상의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 또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를 상조할 수 있다. 제3조 일본국신민은 남만주에서 자유롭게 거주 왕래하여 각종 상공업 기타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 上, 406~407쪽).

7)塚瀬進, 2004, 『滿洲の日本人』, 吉川弘文館, 45~46쪽.

8) 『衆議院議事速記録』 3, 170쪽.

9) 商租權 문제는 일제와 중국 간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한 쟁점이었다. 즉 만몽조약에서의 상조권 설정은 이후에도 이를 둘러싼 적용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게 된다(孫春日, 1998, 『日帝의 在滿韓人에 대한 土地政策 研究-滿洲國 時期를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73~77쪽).

10) 朝鮮總督府中樞院, 1918, 『鮮人ノ土地所有權ト歸化』, 『東部間島及咸鏡南北道特別調査報告書』, 79~80쪽.

화 입적하려고 하였다.¹¹⁾ 이렇듯 중국측의 속지주의와 일본측의 속인주의의 대립으로 이주한인의 토지소유권은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었다.

경술국치 이후 독립운동가들은 만주지역에 새로운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고 이를 위해 민족학교 설립을 서둘렀다. 서간도지역의 신흥무관학교는 그 결과물이다. 경술국치 다음해인 1911년 6월 설립된 신흥강습소¹²⁾는 우당 이회영, 석주 이상룡, 석오 이동녕, 백우 이장녕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탄생된 군사학교였다.¹³⁾ 을사늑약 이후 대한제국은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으며,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던 지사들이 모여 조직한 신민회에서 해외 독립운동기지 건설을 추진하였고 신흥무관학교는 그러한 설립의지로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서간도의 추위는 유명하다. 독립운동가들은 일제의 군경도 피해야 했지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만주의 독한 추위와도 싸워야 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출발한 신흥무관학교는 공식적인 폐교를 선언했던 1920년 8월까지 존속되었다. 졸업생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약 3천명이었다. 또한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로 조직된 신흥교우단은 학교의 결속력을 다지고 이들의 사정을 대내외에 홍보하는 작업도 병행하였다. 후일 신흥교우단은 신흥학우단으로 명칭을 바꾸었지만 설립 목적과 활동은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졸업생들은 서간도지역 민족학교의 교원으로 선발되어 활동하거나 백서농장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다. 이렇듯 신흥무관학교는 학생을 교수하고 졸업생들은 또다른 학교의 교원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서간도지역 이주한인들의 교육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자유와 평화를 위해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선각자들의 의지가 신흥무관학교 설립과 운영에 그대로 반영되었던 것이다. 제국주의 일본에 자유를 잃고 민족의 자유를 되찾기 위한 여정이 신흥무관학교였다. 신흥교우단에서 발간한 『신흥교우보』에는 한민족이 나라를 잃고 노예로 전락했던 과정과 또 잃어버린 조

11) 『間島關係』(開放及調査) 2, 605쪽.

12) 1911년 6월 삼원포 추가가에 설립될 당시 명칭은 신흥강습소였다. 그 1912년 통화현 합니하로 이전하여 학교를 확장했을 때에도 신흥강습소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1919년 경에는 신흥중학이라고 하였다. 다만 무관학교를 형식적으로 내세우지 않아다는 점, 그것이 바로 중국 지방정부도 자극하지 않고 일본 밀정이나 영사관에게 시비거리를 주지 않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당시 구성원들은 신흥무관학교로 인식하면서 생활하였고, 특히 교관들이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또는 일본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었다는 점으로 볼 때 일반 민족학교가 아니라 무관학교라는 점은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신흥무관학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13) 현재에도 신흥강습소가 설립되었던 추가가의 주민들은 민국시기 한인 학교가 세워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일부 주민들은 대고산 정상에 한국관련 기념비와 글자가 남아 있다고 할 정도였다.

국을 찾아야만 하는 정당성을 홍보하는 글이 게재되어 있다. 나라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만주지역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은 대한제국의 멸망과 같이 나라와 민족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유교에 매몰되었던 구사상을 타파하고 근대적인 지식과 실질적인 직업 교육을 중시하였다. 나아가 민족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 단기(檀紀)를 연호로 사용하였다. 한민족의 뿌리를 단군에서 찾고자 했던 것이다. 이것은 정신적인 측면과 근대 과학의 결합을 통해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¹⁴⁾ 신흥교우보의 편집인 강일수는 「간도동포를 향하여 자제교육을 권고함」이라는 글에서 대한제국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역사를 통해 증명하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신흥무관학교에서는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도 중시하지만 민족적 흥망성쇠가 어디에 달려 있는 지 명확하게 교수하고 있었다. 이 글은 그러한 신흥무관학교의 교육적 측면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서 이주 한인사회에도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역점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⁵⁾ 한 사회의 구성원 특히 근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하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자 길이 교육이라고 역설하였다.

신흥무관학교는 독립군을 길러내는 군사학교였다. 1911년 건립 당시 신흥장 습소로 출발하였지만 당시 교사들의 출신만 보더라도 군사학교임을 알 수 있다.¹⁶⁾ 예를 들면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출신들뿐만 아니라 후일 김경천, 지청천과 같이 일본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교관을 합류하여 근대적인 군사학교를 지향하였다. 하지만 초기부터 넉넉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인 측면을 강화하는 교육이 실시되었다. 신흥무관학교 출신인 원병상의 수기에는 아침마다 교감이었던 윤기섭의 아침 조회와 함께 체력단련을 위해 혼강(渾江)을 구보하였다고 했다. 먹을 것은 좁쌀 밥과 콩자반이 일상식이었다고 하였다. 힘들고 고난의 시기였지만 그 시기를 잘 견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원병상의 수기에는 그가 신흥무관학교 재학시 수업을 받았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¹⁷⁾

신흥무관학교의 외곽조직인 신흥교우단은 1913년 5월 6일 합니하에서 창단되었다. 신흥교우단은 1911년 6월에 설립된 신흥무관학교가 졸업생을 배출했

14) 서중석, 2001,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58쪽.

15) 강일수, 「간도동포를 향하여 자제교육을 권고함」, 『신흥교우보』, 8쪽.

16) 서중석, 2001, 앞의 책, 123쪽.

17) 원병상, 1976, 「원병상 수기」, 『독립운동사자료집』(10), 19~24쪽.

으며, 이제는 독립운동을 대내외에 알리고 신흥무관학교의 위상을 위한 외곽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된 시기에 조직되었다.¹⁸⁾ 신흥교우단은 “혁명대열에 참여하여 대의를 생명으로 삼아 조국 광복을 위해 모교의 정신을 그대로 살려 최후 일각까지 투쟁한다”는 설립목적을 분명히 하였다.¹⁹⁾ 1913년 5월 10일 제 1회 임시총회를 신흥무관학교 내에 개최하였는데 참석자는 25명이었다. 창간호에 10명의 참석자 명단과 다음호인 제2호에는 15명의 명단이 수록되었다.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형국, 조병직, 강남호, 김기풍, 김노식, 최승훈, 정동수, 엄주관, 황병석, 이의직, 강한년(밑줄 인용자), 이병찬, 서병희, 이강준, 강일수²⁰⁾

이 신흥교우보를 발행하는 데 편집인으로 참여했던 康翰年(이명 康璡暎)은 1880년 전북 옥구에서 출생하였다.²¹⁾ 그는 1913년 처남 배헌(裴憲)과 함께 신흥무관학교(新興武官學校)에 입교하였다. 신흥무관학교가 재정난에 처한 것을 알고 다음해인 1914년 가을 처남 배헌과 함께 귀국하여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재정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강한년은 신흥무관학교 운영에도 직접 참여하였으며, 외곽조직인 신흥교우보와 신흥학우보의 임원으로 활동하였다. 즉 그는 신흥교우단 창립 멤버로 활동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1914년에는 신흥교우단의 운동부장을 역임하였다. 그와 함께 신흥교우보의 발행인과 각 임원단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8) 지금까지 신흥학우단의 설립시기는 1913년 3월로 알려져 있었다. 서중석은 신흥학우단의 발족시기를 1913년 3월경으로 잡고 있는데, 이번 신흥교우보의 발굴을 통해 창단 시기도 확인할 수 있었다. 원병상의 수기에는 “1913년 3월 우리는 신흥학우단을 조직하였다. 교장 여준, 교감 윤기섭 양 선생 이하 제1회 졸업생 김석, 강일수, 이근호 등의 발기로 조직된 이 학우단은 무관학교의 교직원과 졸업생이 정단원이 되고 재학생은 준단원이 되는 일종의 동창회 성격을 띤 단체로서 처음에는 다물단이라고 하였다가 그뒤 부르기 쉽게 학우단이라고 개칭하였다”라고 한 사실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신흥학우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19) 원병상, 1976, 앞의 책, 16쪽.

20) 『신흥교우보』 제2호, 91~92쪽. 25명 전원을 파악하기에는 곤란하지만 이들 이외에 이영, 원병상, 장정근, 이병세, 배헌, 이근호 등과 『신흥교우보』 필자 가운데에 속한 것으로 보인다.

21) 『독립운동사자료집』 10권, 18쪽.

신흥교우보 발행인과 임원단 현황

직책	편집인	발행인	임원단장	부단장	총무	회계	서기	토론후장
이름	황병우	박돈서	황병우	신창준	박돈서	이찬희	이의식 황병창	엄주관
직책	서기	운동부장	총무	인쇄인	회계부원	편집부장	교정원	
이름	강한년, 김창화 배관권	이병세	서병희	엄주관	신창준 정동수	이영	여준, 윤기섭	

* 『국민보』, 1914년 4월 11일, 신흥교우보 기자의 변경과 각 임원.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신흥무관학교 설립에 관여했던 여준과 교감 윤기섭²²⁾이 신흥교우보의 교정을 책임졌다.

한편 독립기념관 자료실 수장고에 소장되어 있는 신흥학우단의 기관지 『신흥학우보』는 신흥교우단에서 발간한 『신흥교우보』의 잡지 명칭이 변경된 후 발행한 것이다. 신흥학우단은 단원들의 정신적 소양을 목적으로 단가 및 단시를 만들어 낭독시켰다. 『신흥학우보』 제2권 제2호를 보면 수필가 곡조를 차용한 신흥학우단가가 실려 있다. 『신흥학우보』 제2권 제2호는 『신흥교우보』 제2호²³⁾가 나오기 전까지 신흥학우단의 활동과 성격 등 그 실체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간행물이었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신흥학우보』 제2권 제2호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도 시도하였다.²⁴⁾ 『신흥학우보』는 『신흥교우보』 제2호가 100면이었던 것에 반해 66쪽으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새해 1월에 발간되었기 때문에 축하 관련 광고를 첫 지면으로 할애하였다. 『신흥학우보』 제2권 제2호는 새해에는 우리 민족이 독립기를 높이 들고 광복의 날까지 전진하자고 동포들에게 고하는 신년사와 전쟁관련 논단, 청년들의 대오각성을 촉구하는 글들이 차례로 실려 있다.²⁵⁾

강한년은 1917년부터 신흥학우단 재정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운영에 진력하였다. 1919년 이후 만주지역의 독립운동의 르네상스기가 도래하였고, 제국주의 일본은 3.1운동의 열기를 만주에서도 억누르고자 대규모의 군대를 파견하기에 이르렀다. 강한년은 서로군정서에서 북로군정서로 파견되어 청산리 전투에 직접 참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청산리 전투 이후 만주에서 계

22) 한시준, 2013, 『신흥무관학교와 尹琦燮』, 『한국근현대사연구』 67.

23) 신흥교우보에 대해서는 김주용, 2011, 『신흥교우보로 통해본 신흥무관학교』,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0 참조.

24) 서중석, 2001, 앞의 책, 136~138쪽.

25) 『신흥학우보』 2권 2호, 11쪽.

속 활동하다가 1940년 4월 20일 하얼빈 적십자 병원에서 별세하였다.²⁶⁾

3. 청산리대첩과 전복인의 활동

1907년 북간도에 통감부임시파출소를 설치한 제국 일본은 간도의 치안상태를 일제의 대륙침략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간주되었다. 통감부임시파출소는 정부방침 4강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간도의 소속은 미정이지만 차라리 장래에 있어서 한국의 영토로 하여, 제국 및 한국 신민의 복리를 증진해야 한다. 둘째 변추비경(邊陲悲境)의 백성을 인애(仁愛)로 무육(撫育)하고 임협(任俠)으로 이를 도움으로써 우리 폐하의 성덕을 입게 하여, 제국보호 하에 안태를 얻게 함을 우선으로 하고, 법령간이로 그 귀향(歸向)에 편하게 함을 요한다. 셋째 청국 관리병원에 대해서는 우리로부터 멋대로 일을 꾸미는 일 없이, 힘써 회유의 책을 구축하고, 그 신(臣)에 대해서는 정도(正道)에 의해 일시동인황화(一視同仁皇化)를 누리게 할 각오를 요한다. 넷째 이익이 생기는 근원을 개발하지 않으면 국민민복(國利民福)의 발달을 기하기는 어려우므로, 세심한 주의로써 영원한 계획을 세우고 순서를 따라 시설을 완성해야 한다.²⁷⁾

통감부파출소는 한민보호에 필요한 명령을 전달하고, 또 민의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 간도를 북도소(北都所), 회령간도, 종성간도, 무산간도의 네 구역으로 나누고 이에 도사장(都社長) 1명씩을 두고, 다시 이를 49사(社)로 나누어 각 사장을 두며, 또 이를 290촌으로 나누어 각 촌장을 두었다. 그리고 이들 지방공사의 직무규정을 정하고, 또 간도 한국 신민의 마음가짐을 제정하여 한민

26) 국가보훈처, 1990, 『독립유공자공훈록』 제8권. 강한년이 청산리전투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는지 정확한 자료를 발굴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정밀한 추적이 필요하지만 필자의 능력 부족으로 만족할만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즉 강한년이 활동했던 1910년대부터 그가 순국했던 1940년까지의 생애를 추적하기에는 사료가 지극히 부족한 상태이다. 향후 그의 처남 배헌은 귀국해서 신간회 익산지회장을 역임하는 등 일제강점기 전북지역에서 민족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해방 후 이리지역 제헌국회의원까지 지냈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사료 추적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는 추후 과제로 삼겠다.

27) 『이주민 통치연혁 및 통치기관』, 24~25쪽.

으로서 순종할 것을 일방적으로 알렸다. 한반도 통치에 간도지역 한인은 중요한 존재였다. 1909년 간도일본총영사관을 설치하면서 영사경찰로 하여금 이주 한인들을 감시하고 통제하였다. 특히 3.1운동 이후 조선군사령관 우쓰노미야는 만주지역 한인들의 동태를 면밀히 관찰해야 함을 일본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할 정도였다. 간도침략 즉 ‘간도출병’의 서막이 열리게 된 셈이다.²⁸⁾ 조선군 19사단, 20사단, 관동군, 블라디보스토크 주둔군 등 약 2만명이 서북간도의 한국 독립운동가를 ‘토벌’한다는 명목으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타국에서 전개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대규모 학살의 시작이기도 하다.

일제의 이러한 의지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제1단계에서는 작전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독립군 무장대를 전원 섬멸하거나 검거해서 독립군의 무장항쟁을 발본색원하는 것이다. 제2단계는 1단계가 끝난 후 다시 1개월 이내에 촌락에 ‘잠복’하고 있는 독립운동가를 철저히 ‘색출’하여 무장 및 비무장운동까지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²⁹⁾ 1920년 10월 7일 일제는 재만 일본 거주민의 안전을 위해 제19사단 산하 이소바야시(磯林) 지대를 파견하여 중국 측을 압박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간도총영사관에서는 독립군 탄압에 필요한 군대의 증병을 요청하였다.³⁰⁾

한편 서간도지역에서는 신흥무관학교의 존재가 제국주의 일본입장에서는 눈엣가시였다. 제국주의 군대가 출동하기 10개월 전인 1920년 1월 25일 중국의 지방경찰이 대두자 신흥무관학교를 대대적으로 수색하였다. 제국주의 일본에 결국 굴복한 중국 경찰의 행위였지만 이 수색으로 목총 60정이 압수당하였고, 학교는 폐교의 수순을 밟게 되었다. 당시 이 과정에서 교장 이장녕과 교사 이법석은 대두자에서 삼원포 지역으로 피신하였다.³¹⁾

3.1운동 이후 만주지역은 독립운동의 르네상스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독립운동단체가 결성되었다. 일제는 만주의 독립군 상황을 결코 좌시할 수 없었다. 이른바 ‘간도침공’이 계획되었다. 서로군정서는 일제의 ‘토

28) 金正柱, 1970, 『間島出兵史』 上, 『朝鮮統治史料』 2, 한국사료연구원, 12쪽.

29) 신용하, 1988, 『봉오동전투와 청산리독립전쟁』, 『한민족독립운동사』 4, 국사편찬위원회, 107쪽.

30) 김주용, 2008, 『일제의 간도 경제침략과 한인사회』, 선인출판사, 72~73쪽.

3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42, 110쪽. 이덕산·최동원, 『백우 이장녕장군부자-독립운동약전』에 의하면 “3대부터는 신흥학교의 교장직을 맡아 하였고, 때로는 분교를 돌며 기강과 전통을 세우기에 투신하셨다”(이덕산·최동원, 『백우 이장녕장군부자-독립운동약전』, 12쪽)라고 한데 서 알 수 있듯이 이장녕의 온화하면서 강직한 인품이 10여년간 신흥무관학교의 지킴이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 같다.

별로' 피전책을 결정하고 1920년 7월 산림지대인 안도현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마지막 생도이자 일본 육군사관학교 제26기 출신인 지칭천이 이끄는 신흥무관학교의 교성대 약 400명은 서로군정서 참모장 일송 김동삼과 신흥무관학교 교관 김창환, 오광선, 김승빈 등과 함께 유하현을 출발하여 안도현으로 이동하였다.³²⁾

여기에서 주목되는 전복출신인물이 고평(高平)이다. 그는 1886년 전북 정읍군 고부면 신흥리에서 태어났다.³³⁾ 본명은 고인석(高仁碩), 이명은 고찬(高鑣)이다. 1891년부터 1898년까지 8년간 전남 창평 유천리에서 한문을 수학하였다. 1902년 서울 보광중학교(普光中學校)를 졸업하고 경성관립법관양성소(京城官立法官養成所)에 들어가 법률을 공부하였다. 1905년 4월에 경성지방법원 춘천지청 검사에 임명되었다. 한편 불교에 심취하여 1906~1910년에는 전북 부안 내소사(來蘇寺)에 머물면서 불교철학을 공부하였다. 고평은 1911년 7월 대종교(大宗教)에 입교하였고, 이듬해 2월 대종교 남도본사 관내의 포교원(布教員)에 임명되었다. 또 1913년 4월에 대종교 본사 전강(典講)에 임명되어 중국 연변 왕청현(汪淸縣)으로 이거하게 되었다. 이후 그는 대종교의 종교 활동과 연계된 민족운동에 투신하게 되었다.

고평은 연해주 니콜리스크우수리스크의 한인촌에서 1919년 2월 18일과 20일에 국자가(局子街 : 지금의 연길)의 연길도윤공서(延吉道尹公署) 외교과원 박동원(朴東轅)의 집에 가서 이 지역 독립운동가 33명과 함께 첫째 간도(중국 연변) 내 각 교회와 단체는 서로 단결하고 협력 일치하여 한족(韓族) 독립운동에 힘을 다할 것, 둘째 한족 독립선언서 공표와 동시에 간도지역 각 단체는 일제히 시위운동을 개시할 것, 셋째 한족(韓族) 독립선언서가 발표되면 각 단체 유력자는 용정촌(龍井村)에 모여서 독립을 선언하여 기세를 올릴 것 등을 결의하였다.³⁴⁾

한편 고평은 대한군정서에서 군정위원으로 활동하였다.³⁵⁾ 대한군정서는 중광단 시절부터 근거지로 삼아온 왕청현 춘명향 유수천(楡樹川) 즉 덕원리(德源里)에다 총본부격인 총재부를 두었으며, 춘명향 십리평(十里坪) 서대파에 군사령부를 두었다. 십리평은 진공작전과 군수지원을 위한 진출입로, 진출입로를

32) 지복영, 『역사의 수레를 끌고 밀며』, 59쪽.

33) 고평에 관한 연구는 장세운, 앞의 글 참조.

34) 姜德相, 1977, 『現代史資料』 26, 東京: みすず書房, 84~85쪽. 일본 정보자료에 따르면 이 때 고평은 러시아에서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5)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滿洲ノ部』 16, 『間島 不逞鮮人 團體ト動靜ニ關スル 調査書ノ件』(1920년 3월 29일).

통제할 지형지물을 구비하였다는 점은 현대적 관점에서의 군사기지 개념에도 손색이 없다. 즉 서대파의 가야하 상류가 충분한 물을 공급했고 왕청현을 비롯한 북간도 일대에 생활터전을 마련한 한인사회로부터 군량을 확보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었다. 또한 도금류 정도는 제작이 가능한 병기공장, 군복을 자체 보급할 정도의 피복 공장, 등사수준의 인쇄소까지 갖춘 종합 군사기지를 구축하였던 것이다.³⁶⁾ 청산리전투 직전의 핵심 간부진을 보면 서일이 총재, 현찬묵(玄天默)이 부총재를 맡았으며, 서무부장 임도준(任度準), 재무부장 계화(桂和), 참모부장 이장녕(李章寧) 등이 있었다.³⁷⁾

고평은 청산리 전투 이후 1922년부터 고려혁명군에서 나와 개인 자격으로 유럽의 군사 사찰에 나가 1925년까지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리고 1928년에는 만주 각지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을 모아 재만 혁명동지회를 조직하였다.³⁸⁾

한편 고평과 함께 청산리 전역에 참여한 강문주는 전북 옥구에서 1879년에 태어났다. 그는 1910년대 만주로 망명하여 홍범도가 이끌고 있는 대한독립군의 제1군 중대장으로 활동하였다.³⁹⁾ 1921년에는 의군부 참리부에서 모연대장 역할을 수행하였다.⁴⁰⁾ 강문주는 의군부(義軍府)의 핵심 요인으로 군기 감독을 담당하였다.⁴¹⁾ 그는 1919년 의군부에 가입하였다. 의군부는 1920년 4월 이범윤(李範允)·진학신(秦學新)·최우익(崔友翼)·김현규(金鉉奎) 등이 간도지역 연길현(延吉縣)에서 조직한 항일무장투쟁단체였다. 이 단체의 조직은 본부와 중부로 되어 있다. 본부 총재로는 이범윤이 맡았으며, 총사령관에 김현규가 선임되었다. 중부는 전북 정읍 출신 참모장 고평(高平)이 맡았다. 그 아래 서무·재무·외교·통신·군법·헌병 등의 부서가 있었는데 군의 감독은 강문주 맡았다. 특히 중부조직은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조직형태를 만들었고 그 휘하에 5개 대대의 예하 병력을 거느리고 본부와 유기적 연락을 취하면서 북간도 지역 일대의 제국주의 일본의 밀정이나 및 친일파들을 격퇴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1920년 8월에는 제국주의 일본의 사주를 받은 맹부덕의 군대와 교전을 벌였

36) 김종해, 2020,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청산리대첩100주년기념 학술세미나발표집』, 29쪽.

37) 박민영, 2002,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신편 한국사』 48(임시정부의 편성과 독립전쟁), 국사편찬위원회, 201~202쪽.

38) 채근식, 『무장독립운동비사』, 76·77·105·106쪽.

39)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滿洲ノ部』 16, 『間島 不逞鮮人 團體ト動靜ニ關スル 調査書ノ件』(1920년 3월 29일).

40)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滿洲ノ部』 28, 『朝鮮側 警察이 朝鮮人 金順 等 拘引ニ 關スル件』(1921년 6월 27일).

41) 채근식, 앞의 책 참조.

다. 특히 1920년 10월 21일부터 6일간 전개된 청산리 전투에서 의군부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큰 공을 세웠다. 의군부 내에서는 약 2만 명의 일본군을 대적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북로군정서와 합세하였다. 북로군정서의 백운평 전투를 비롯한 수차례 전투에서 일본군을 섬멸하는 데 기여하였다. 청산리 전투는 일본군과 싸워도 지지 않는다는 자신감과 민족의 존재를 확인시켜준 한국독립운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승이었다. 청산리 전투는 단순히 유인책의 성공이 아니라 십수년간 준비해온 독립전쟁의 금자탑이라고 할 수 있다. 의군부는 청산리 전투 이후 다른 독립군단체가 그러하듯 밀산지역에 집합하여 전열을 정비한 후 다시 러시아 이만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⁴²⁾

4. 무장투쟁과 군자금 모금 활동

1) 대한독립단의 군자금 모집과 박운경

독립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정규군과 비정규군 모두 필요하다. 특히 조직 유지를 위해서는 인력과 함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국가에서 일정한 예산을 배정한 정규군과 달리 독립군들은 군자금 문제가 조직 존립의 중요한 열쇠였다. 재정 확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진 독립운동단체는 조직 운영에도 숨통을 트게 되었다. 그러하지 못한 단체들은 군자금 모금에 조직의 사활을 걸어야 하였다. 예컨대 1919년 3.1운동 이후 우후죽순으로 탄생되었던 독립운동단체들은 예산 확보를 위해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군자금을 모집하거나 또는 국내에 들어와 부호들에게 강박적으로 군자금을 모금할 수밖에 없었다.

1920년대 만주의 독립운동단체들은 군자금 모금을 위하여 자주 국경지역에서 조선군과 교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었다.⁴³⁾ 뿐만 아니라 친일 단체였던 보민회의 간부를 군자금 모금 과정에서 암살하는 경우도 있었다.⁴⁴⁾ 이처럼 1920년대 초반 서북간도를 비롯한 만주지역의 독립운동단체들은 군자금 모금에 진력한 것은 3.1운동 이후 국제정세의 변화와도 연관이 있다. 즉 제1차세계대전

42) 독립운동사 5권, 339쪽.

43)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滿洲의 部』 권 30, 『間島地方ニ於ケル不逞鮮人ノ行動ニ關スル件』 機密제439호, 1921. 10. 22).

44)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滿洲의 部』 권 30, 『保民會員 暗殺』(제57호, 1921. 10. 26).

이후 태평양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이 회의에서 논의한 것은 열강들의 군비 축소와 세계 질서의 재편이었다. 독립운동가들은 사실 이 회의에 큰 기대를 걸면서 군자금 모금에도 대규모 인원을 동원하였다. 즉 독립전쟁을 치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한 것이다. 서간도에서 조직된 대표적인 독립운동단체인 대한독립단은 주요 기관 파괴와 군자금 모금 활동을 전개하였다. 3~4명 정도가 한조를 이루고 이들을 결사대라고 하였다. 이들은 무기를 휴대하고 압록강을 건너 평안남북도에서 관공서 습격과 일제 주구 차단 활동에 전념하였다. 대한독립단 설립 초기 全德元은 李明瑞, 許承澤, 玉京俊, 金龍甫, 尹學天 등과 함께 평북의 지단을 통해 군자금을 모금하였다.⁴⁵⁾ 1920년 3월 12일 평북 臺山 면장을 사살하였던 대한독립단은⁴⁶⁾ 3일 뒤 3명의 결사대원이 평안북도 의주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던 한인 순사 金明沃을 사살하였다.⁴⁷⁾

군자금 모금은 이주 한인사회에도 부담이 되었다. 이주 한인들의 생활이 궁핍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군자금 모금은 자칫 한인사회와 독립군들이 균열을 보일 수 있는 문제였다. 모금 방법이 문제였다. 그래서 대한독립단에서는 군자금 모금 방식을 다원화시킬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1921년 10월 독립단 김이하(金利河)는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군자금을 모금하였는데 각 호마다 은 70전을 징수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한인사회의 원망을 듣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1921년 11월 대한독립단은 군자금 모금할 모연대 50명을 선발하고 국내로 들여보내 함경남도 삼수군·갑산군 지방 및 평안북도 방면에 분파하여 군자금 모금을 위해 노력하였다.⁴⁸⁾ 대한독립단은 워싱턴회의 종료와 함께 한반도에 내진한다는 목표 하에 군자금을 모금하였다. 1921년 10월 27일 상해 임시정부 파견원 등은 관전현(寬甸縣) 삼도구(三道溝)에서 독립단 전덕원 총재와 모여 회의한 결과 첫째 대한독립단은 임시정부와 서로에 대한 의견을 존중하고 일본 관헌을 습격하고 암살하여 이주한인들에게 독립운동의 기세를 높이는 데 협력하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또한 태평양 회의에서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지 못하면 우리 민족은 독립을 쟁취하기 까지 최후의 한명도 목숨을 바쳐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군자금을 모금하고 독립운동에 전념할 청년들을 모집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새로운 선전문을 인쇄하여 대외적으로 배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⁴⁹⁾ 이 회의에는 李雄海(환인현지단장,

45) 金承學, 『韓國獨立史』, 328쪽.

46) 채근식, 『武裝獨立運動秘史』, 56쪽.

47) 채근식, 위의 책, 56쪽.

48)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滿洲ノ部』 권 30, 『安圖縣地方ノ不逞鮮人團ノ情況ニ關スル件』(機密제478호, 1921. 11. 19).

부하 45명) 등 수십명의 독립군들이 참여하였다. 주요 안건은 군자금 모금과 제국주의 기관 파괴와 주구 처단 등이었다.⁵⁰⁾

1921년 대한독립단은 조직을 재구성하였다. 총재로는 朴華南, 단장에는 이 옹해를 선임하였다. 총무에는 김원섭과 재무에는 전덕원이 선임되었고, 참모부장에는 김유성과 사법부장 황병문, 북로사령관 맹철호가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인원은 700명 정도였다.⁵¹⁾ 다음해 2월 봉천경무서장이 관동청경무국에 보낸 보고서에는 대한독립단이 군자금모집과 함께 일제 기관의 습격 및 요인 암살에도 적극적이었다고 하였다.⁵²⁾ 대한독립단의 군자금 모금은 집요하고 광대하였다. 즉 대한독립단 사법부장 황병문, 김효선은 권총 구입을 위해 서간도를 경유하여 길림으로 들어갔다. 또 鄭兼鎭, 金亨模, 鄭敬詢는 친일파 및 일본관료 암살과 군자금 모금을 위해 각자 권총 1정, 폭탄 2개, 군자금 영수증 200매와 태평양회의에 관한 선전문을 휴대하여 같은 해 1월 안동현을 통과하여 국내로 향하였지만 관헌의 단속이 엄격하기 때문에 다시 관전현 이도구에 도착하였다. 1921년 4월 韓鳳朝, 金相律, 金亨模 등은 의주 白承瑞 집에 이르러 군자금 영수증 50매를 건네어 군자금 모집을 의뢰하였으나 일본관헌에게 체포되었다.

1922년 2월 23일 대한독립단원 李根洙, 金麗善은 通化縣 李鎭根 집에 들어가 통화현 保民會⁵³⁾ 분회장 朴元信에게 보민회원 및 일반인들에게 의연금 5천원을 할당하였다.⁵⁴⁾ 이주 한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주 한인 동포들에게 군자금을 모금한다는 것은 독립군단체와 한인사회의 갈등의 소지를 제공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당시 1,500원은 고액이며, 이를 통화현에서 모금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금액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대한독립단의 군자금 모금 루트는 다양하였다. 특히 군자금을 투자금 형식으로 받기도 하였다. 이것도 강제성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군자금 모금이 순조롭지는 못하였다. 1922년 3월 대한독립단원은 봉황성현 거주 이주

49)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滿洲ノ部』 권 30, 『不逞鮮人行動ニ關スル件』(機密공제73호, 1921. 11. 18).

50) 위와 같음.

51)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滿洲ノ部』 권 30, 『管内不逞鮮人一覽表進達ノ件』(機密공제75호, 1921. 11. 25).

52)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滿洲ノ部』 권 31, 『不逞鮮人動靜』(關機高收제1694호-1, 1922. 2. 20).

53) 保民會는 종교단체이면서 경제단체를 지향하였고 일제에게는 이주 한인을 이용하는데 매우 적합한 단체로 인식되었다.

54)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滿洲ノ部』 권 32, 『不逞鮮人竝馬賊行動ニ關スル件』(機密제14호, 1922. 2. 28).

조선인 노유용(盧裕容) 집에서 여러 명에게 군자금을 할당하였다. 예를 들면 노우용(盧右用)에게 2백엔, 전경학(全京鶴)에게 30엔, 최승홀(崔承屹)에게 1백엔, 박노학(朴魯學)에게 20엔 등이다. 그리고 군자금을 제공한 이들을 각각 독립단 간부로 임명하였다.⁵⁵⁾ 이는 대한독립단이 본부 중심의 군자금 모금뿐만 아니라 지단에서도 자체적인 군자금 모금도 시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군자금 모금을 명목으로 하면서 이주 한인에게 독립정신과 민족정기를 고취시키는 선전활동도 병행하던 것이다.

서간도 유하현 하마탕[哈蟆塘]에 거주하는 박승도(朴承道)는 군자금을 5원에서 50원까지 자발적 모금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직업적 독립운동가들을 위해 또는 독립운동단체의 존립을 위해 자발적인 모금을 진행한 박승도 이외에도 몇 명의 사례가 보인다. 유하현에서 자신의 재산 일부를 군자금으로 내놓은 인물도 5~6명 정도였다.⁵⁶⁾

1922년 8월 28일 통화분관주임 혼다(本田選)는 일본 내무대신에게 통화현 일대에서 군자금 활동을 한 대한독립단원 체포사실을 보고하였다.⁵⁷⁾ 이러한 보고는 1920년대 서간도 일대에서 가장 규모가 큰 친일단체인 보민회(保民會) 통화현 통북지구 부회장 이용석(李溶錫)의 밀고로 가능하였다. 이때 검거된 독립운동가는 원희조(대한독립단 집단지단 외무감독), 배기준(裴基俊, 일명 裴基元, 집단지단통신 겸 검찰), 허병(許丙, 외교원) 등이다.

1922년 9월 대한독립단원들이 무기를 소지하고 서간도 지방을 다니면서 친일 주구들을 위협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반 이주민에게 군자금 모금과 함께 폭행을 서슴지 않았다고 당시 일본영사관 관리가 보고하였다.⁵⁸⁾ 대한독립단의 군자금 모금활동을 유격전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친일단체인 조선인민회에 대한 강제적인 군자금 모금활동도 전개하였다. 1922년 12월 서풍현(西豊縣) 조선인민회 구장 홍승완(洪承莞)에게 군자금 명목으로 민회원에게 1천원을 요구하였다.⁵⁹⁾

55)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滿洲ノ部』 권 30, 『不逞鮮人ノ行動』(關機高秘제3846호-1, 1922. 4. 10).

56)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滿洲ノ部』 권 33, 『南山城子附近ニ於ケル不逞鮮人ノ狀況』(關機高收제8114호-1).

57)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滿洲ノ部』 권 33, 『不逞鮮人逮捕ニ關スル件』(機密公제55호, 1922. 8. 28).

58)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滿洲ノ部』 권 33, 『不逞鮮人ノ行動』(關機高收제12529호-1, 1922. 9. 13).

59)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滿洲ノ部』 권 35, 『不逞鮮人被害ニ關スル件報告』(公제103호, 1922. 12. 19).

1922년 8월 독립단 동화현 통남지단의 조직은 지단장 노기주(盧基柱)를 비롯하여 재무 김태진(金泰眞), 도검찰 김병학(金炳學), 외교 전형직(田亨稷), 참의 김운성(金運聖)이다.⁶⁰⁾ 이들은 군자금 모금 방법과 구역 경비를 논의하였는데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당시 통남지단장 노기주는 제6구총무 정주화(鄭柱化)에게 국가의 광복과 동포를 원조하기 위해서는 태만한 사업태도를 지양하고 이주 한인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이는 군자금 모금, 군사력 보충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사안보다도 주의를 요하고 있다고 했다. 단합, 비밀, 통신친목, 정탐은 단원이 이행해야 할 사항이었다.⁶¹⁾ 당시 대한 독립단의 최대의 급무는 무기구입대금 즉 군자금 조달에 있었기 때문이다.⁶²⁾

박운경은 1878년 전북 남원에서 태어났다. 1919년 그가 대한독립단 집안환인(集安桓仁) 총지단장으로 활동하던 가운데 독립단 소집위원 맹헌규(孟憲奎)가 중국경찰에 체포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박운경은 같은 해 10월 집안현 경찰소장에게 맹헌규의 석방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동년 11월 동단 제1중대장에 선임되어 환인현에서 군자금 모집활동을 전개하였으며 1920년 동단 중앙총무장(中央總務長)에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대한독립단은 의병운동 계열이 주도가 되어 조직된 단체이다. 1919년 4월 15일 만주지역에 흩어져 있던 의병계열의 인사들이 각 단체를 해산하고 결성하였으며, 복벽주의(復辟主義)를 이념으로 하였다. 본부를 유하현 삼원포에 두었다. 도총재에는 박장호(朴長浩), 부총재(副總裁) 백삼규(白三圭)가 선임되었다. 도총재부 산하에는 행정 사무기구로 총단이 있으며, 총단장에 조맹선(趙孟善)이 선임되었고, 부단장에 최영호(崔永浩), 김원섭(金元燮)이 활동하였다. 남만지역의 환인(桓仁), 장백(長白), 무송(撫松), 임강(臨江), 관전(寬甸), 집안(輯安) 등 10개 현에 지단을 세웠다.

박운경은 길림성 집안현에서 대한독립단에 가입하여 도검찰(都檢察)에 임명된 후 단장 맹철호와 함께 의연금을 모집하고 부일배(附日輩)를 처단하는 활동을 하던 중 1920년 7월 일본경찰과의 교전(交戰) 중에 전사(戰死)하였다.⁶³⁾

60)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滿洲ノ部』 권 33, 『不逞鮮人行動ニ關スル件』(機密公제60호, 1922. 9. 5).

61)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滿洲ノ部』 권 33, 위와 같음.

62)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滿洲ノ部』 32, 『不逞鮮人ノ行動』(關機高收제3846호-1, 1922. 4. 10).

63)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滿洲ノ部』 21, 『鴨江沿岸地方 不逞鮮人 狀況ニ關スル件』(1920. 8. 28).

2) 대한의군부의 군자금 모금과 전복인의 활동

대한의군부는 1919년 4월 의병계 인물이었던 이범윤(李範允), 진학신(秦學新), 최우익(崔友翼), 김청남(金淸南), 김현규(金鉉圭) 등이 주축이 되어 연길현(延吉縣) 명월구(明月溝)에 근거지를 두고 조직된 독립운동단체이다.⁶⁴⁾ 3.1운동 이후 만주지역에서 조직된 독립운동단체의 주요 인물은 신민회의 주요 멤버들과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출신 및 한말 의병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만주지역에서 민족적 자긍심을 가지면서 군사활동을 전개할 독립운동단체를 조직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⁶⁵⁾ 대한의군부의 주요 구성원은 대부분 의병출신들이 많았다. 대한의군부의 조직 형태는 본부와 중부로 나뉘어졌다. 본부의 총재는 이범윤이 선임되었으며, 총사령관은 김현규가 맡았다. 참모장 진학신, 총무부장 최우익, 군무부장 김청남, 외교부장 申立, 통신부장 지우장이었으며, 중부의 사령관에는 신일현이 선임되었다. 참모장에는 전북 정읍 출신 고평, 서무부장 이을, 재무부장 김종현, 외교부장 김종환, 통신부장 박재, 군법원장 허승완, 헌병대장 최상운, 군기감독 역시 전북출신의 강문주였다.⁶⁶⁾ 이밖에 대한의군부에는 전위대를 조직하여 군자금 모금에 나섰다.⁶⁷⁾

만주지역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단체는 군자금 모금과 사투를 벌여야 했다. 대한의군부도 예외는 아니었다.⁶⁸⁾ 의군부의 형편없는 재정을 타개하기 위해서 군자금 모금을 필연적 사안이였다. 대한의군부의 조직 내에서 군자금 모금은 의군부 전위대 즉 모연대에서 맡았다.⁶⁹⁾ 대한의군부는 창설 당시부터 인재 모집도 열성적으로 진행하였다. 지식 청년들의 입단 시험도 엄격하였다.⁷⁰⁾ 뿐만 아니라 ‘본인은 귀단(貴團)의 취지를 열렬히 받들어 헌신 종사할 것을 맹세한다’라는 입단서약까지 하였다.⁷¹⁾

대한의군부의 군자금 모금은 모연대에서 진행하였다. 대한의군부 모연대에

64) 채근식, 『武裝獨立運動秘史』, 74쪽.

65) 윤병석, 1969, 『參議·正義·新民府의 成立過程』, 『白山學報』 7, 113쪽.

66) 채근식, 앞의 책, 76~77쪽.

67) 國史編纂委員會, 1999,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37, 3쪽.

68) 채근식, 위와 같음.

69) 國史編纂委員會, 앞의 책 37, 4쪽.

70) 國史編纂委員會, 앞의 책 37, 18쪽. 모연대원 봉재룡은 입단 당시 1919년 가을 북간도 국자가에서 몇 차례 독립단원들과 접촉하였는데, 독립군들은 비밀문서 등을 건네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시키는 방법으로 밀정인지 아니면 독립군을 자원한 인물인지 시험하였다고 한다.

71)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滿洲ノ部(25)』 『大韓義軍府ノ行動ニ關スル件』(機密제 32호, 1921년 1월 22일).

서는 연길현 이주한인촌의 재산 정도를 조사한 후 부의 정도에 따라 액수를 정하고 마을에 통보하여 군자금을 모집하였다.⁷²⁾ 모연대는 용정촌 상인들에게 군자금 모금액의 약정까지 받았다. 그 금액만도 11,400원으로 당시에는 거금이였다.⁷³⁾ 이처럼 대한의군부의 군자금 모금은 이주 한인사회에 대한 강제성을 강하게 띠면서 진행되었다. 군자금 모금은 다른 독립운동단체와 마찬가지로 대한의군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⁷⁴⁾

대한의군부의 특징은 조직 당시 의병부대 출신들이 주축을 이루었지만⁷⁵⁾ 독립운동의 새로운 기운에 따라 국내의 청년들을 받아들였다는데 있다.⁷⁶⁾ 새로운 인물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하면서 대한의군부의 군자금 모금도 점차 활기를 띠면서 진행되었다. 그 가운데 중요 인물이 모연대장 이제안이다. 모연대장 이제안(李濟安, 일명 李相洛)은 1920년 3월 국내에서 군자금 모금계획을 세웠다. 그는 만주지역 이주한인들에게 군자금을 강제로 모금하는 것은 독립운동단체와 이주한인 동포사회가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군자금 모금 대상을 국내에서 찾았다.⁷⁷⁾ 이러한 가운데 그는 국내에서 대한의군부로 찾아온 정헌태, 봉재룡, 백이홍⁷⁸⁾, 이정기를 일정 기간 동안 교육시켜 다시 국내로 파견하였다.⁷⁹⁾ 이들은 대한의군부 참모부장 전복 정읍 출신 고평(高平)의 명령으로 전위대원 100명과 함께 연길현 난자남곡(蘭溝南谷)에 매장하여 놓은 장총 80정을 꺼내서 군사훈련을 받았다. 장소는 연길현 위자구 부근이었다.⁸⁰⁾

1920년 3월 초 모연대장 이제안은 전위대의 재무부장 김종헌(金鍾憲)의 명령에 따라 정헌태와 함께 군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국내로 진입하였다. 당시 이들이 휴대한 물건은 권총 1정, 군자금 영수증 한 권, 활동비 600원이었다. 다만 국경지역에서 무기 반입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권총은 그대로 두고 국내로 들어왔다.⁸¹⁾ 함북 청진과 함남 원산을 거쳐 경성에 도착하여 군자금 모금

72)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37, 8쪽.

73)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滿洲ノ部(25)』, 『大韓義軍府ノ行動ニ關スル件』(機密 제32호, 1921. 1. 22).

74) 김주용, 앞의 글, 38쪽.

75) 『元帥府去來案』, 1902년 10월 29일(奎章閣소장자료).

76)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滿洲ノ部(25)』, 『大韓義軍府ノ行動ニ關スル件』(機密 제32호, 1921. 1. 22).

77)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5·8쪽(예컨대 1919년 鄭憲臺는 대한의군부 전위대에 입대하여 2주일 가량 신분조사를 받고 바로 모연대에 배치되었다).

78)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37, 22~23쪽.

79)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37, 37·38쪽.

80)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37, 36쪽.

81)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37, 5쪽.

대상을 물색하였지만 마땅하지 않고 자신도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북간도로 되돌아 갔다.⁸²⁾ 한편 이제안의 명령을 받은 이정기, 봉재룡, 백이홍만이 국내로 잠입하여 활동하였는데 이제안이 부재한 상태에서 군자금 모금활동을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⁸³⁾

대한의군부의 군자금 모금 활동은 1920년대 만주지역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단체의 전형이었다. 다시 말해 만주지역 현지의 이주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하거나 또 하나는 국내로 잠입하여 부호들을 대상으로 군자금을 모금하는 형태였다. 무엇보다도 국내로 잠입하여 활동하는 것은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사안이었다. 따라서 군자금 모금은 독립운동단체의 생명줄이었던 것이다. 대한의군부에서 군자금 모금에 치중해서 활동했던 전북출신으로는 박공래(朴琫來, 이명 박정문)를 들 수 있다. 물론 고평, 강문주 등도 있지만 현장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로는 박봉래를 들 수 있다.

박봉래는 1880년 전북 김제 출신으로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국권회복을 위해 만주로 망명하였다가 경술국치 이후 대한독립의군부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1920년 8월 북간도지역에서 의군단원과 함께 러시아 연해주로 총기와 탄환을 구입한 후 양자구(楊子溝)에 있는 대한의군단 단장 이병준(李秉俊)에게 인도하였다. 같은 해 8월에는 망원경, 시계 등을 구입하여 의군부장이범윤(李範允)에게 인도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초 소총 125정과 탄환 12,500발을 구입하여 운반하다가 체포되어 경성복심원에서 징역 5년형을 받고 고등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21년 6월 18일 징역 5년형이 확정되어 장기간의 옥고를 치렀다.⁸⁴⁾

3) 대한독립군비단과 김상술

대한독립군비단은 “민주공화국의 신기원을 건설하기 위해” 민족적 저항과 이를 조직적으로 전개하려고 군자금 모집 활동을 기치로 조직된 단체이다.⁸⁵⁾ 대한독립군비단은 1919년 3.1운동 직후 장백현에서 조직되었다. 대한독립군비

82)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37, 6쪽.

83)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37, 39쪽.

84) 판결문(고등법원 1921. 6. 18).

85) 姜宇鍵, 『遺稿』, 19~20쪽. 대한독립군비단이 창단된 배경에는 상해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총리였던 이동휘의 의중이 반영된 것 같다. 당시 이동휘는 백두산 부근에 무장단체의 설립을 추진하였으며, 대한독립군비단이 그 결과물이라는 것이다(李權洙, 위의 책, 51쪽).

단이 정확히 언제 결성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함경도지사의 1920년 1월 보고에는 1919년 11월 1일 장백현 17도구 왕가동(왕개골) 동평덕(동평더기) 이동백⁸⁶⁾ 집에서 결성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⁸⁷⁾ 하지만 이는 대한독립군비단이 1919년 결성된 이후 조직 쇄신을 위해서 몇 차례 회의를 통해 조직을 일신한 시기를 최초 결성시기로 착각한 것 같다. 대한독립군비단의 결성 시기를 대략 1919년 5월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그해 10월 李泰杰, 金鼎益 등 7명을 파견하고 이전 조직을 일신하여 군비단의 약장 및 지단규칙을 발표하여 새로운 면모를 갖추었다는 데 그 근거를 두고 있다.⁸⁸⁾ 하지만 문제는 상해 임정이 1919년 4월에 세워졌는데 불과 1개월만에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으며, 그 조직 규모가 비교적 컸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 무리가 따르는 견해라고 할 수 있으며, 『유고』에도 창립시기를 1919년 9월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재고할 필요가 있다. 어찌되었건 대한독립군비단이 빠르게 조직의 규모를 늘릴 수 있었던 것은 사전조직 결성에 기초적 단체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것이 바로 한교동사회라고 할 수 있다. 당시 한교동사회 인물 가운데 李泰杰, 李昌雲을 비롯한 인물들이 이후 대한독립군비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활동을 유추해 볼 수 있다.⁸⁹⁾

결성 초기부터 국내와 중국 관내를 연결하여 군자금 모집 및 인적자원 수급 활동에 집중했던 군비단은 장백지역의 지형적 특징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86) 일본의 당시 각종 문서에는 이동백을 대한독립군비단의 ‘영수’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대한독립군비단의 회의 및 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이 이동백의 집에서 이루어졌으며, 또한 이동백이 간부로서 활동한 것을 확대해석한 것이 아닌가 한다(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滿洲の部(24) 『支那 長白縣 內 不逞鮮人을 逮捕』, 1920년 12월 12일). 이동백은 대한독립군비단에서의 활동 이전에 이미 1910년대 북간도지역에서 활동하였으며, 특히 교육사업에 중사하였다(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滿洲ノ部(24) 『支那 長白縣 內 不逞鮮人逮捕』, 1920년 12월 12일).

87)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1920. 1. 7. 『大韓獨立軍備團ノ組織』. 강상진의 회고록에 의하면 1920년 여름 본단의 연락사명을 띠고 상해 임정에 다녀온 이동백이 초기 조선 독립단에서 ‘군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였다. 채영국은 군비단의 결성시기를 1919년 5월로 판단하였으며, 이는 『군비단통첩』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蔡根植의 『武裝獨立運動秘史』, 119쪽에서도 1919년으로만 파악하고 있다. 姜宇鍵의 『遺稿』에 의하면 1919년 9월에 이희삼 등이 17도구에서 조직하였다는 사실로 보아 9월 경에는 조직의 틀을 갖추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는 2002년과 2007년 두 차례 답사를 통해 대한독립군비단의 위치를 비정하였다(2007년 9월 2일 박형호(72세) 증언). 하지만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88) 채영국, 앞의 글, 835쪽.

89)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滿洲ノ部(3)』, 『支那長白縣內 朝鮮人團體組織件』 (1913. 11. 27).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장백이라는 지리적 여건은 함경남도와의 소통의 원활함도 의미한다. 특히 함경남도 삼수, 단천지방과의 긴밀한 협조는 군비단의 활동 방향성도 제시해주었다.

김상술은 1894년 전북 부안군 부령면에서 태어났다. 그는 1920년 5월 독립운동을 위해 기독교 전도사 손영권, 김방욱(金邦旭)과 함께 중국 상해로 망명한 후 군자금 모금을 위해 중국 장백현(長白縣)으로 가서 대한독립군비총단(大韓獨立軍備總團) 비서부장 윤석보(尹石甫)를 만났다.⁹⁰⁾ 이후 대한독립군비총단의 사령서(辭令書)를 교부 받고 1921년 6, 7월경 귀국하여 동지를 규합하고 전북 옥정리 부호 김석용의 집에 가서 군자금 5천원을 요구하는 등 군자금 모금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던 중에 체포되어 전주지방법원(全州地方法院)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등의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⁹¹⁾

5. 삼부 활동과 전북인

1920년대 중반 만주지역에서 민족주의 독립운동단체는 대한통의부(大韓統義府) 시기부터 민정기관이 군정기관보다 우위에 선 가운데 자치의 비중을 높여갔다. 이는 한인사회가 서북간도를 통해 어느 정도 규모면에서 확장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당시 자치는 한인의 교육진흥과 식산흥업에 있었다. 다만 반공개적인 자치였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지향했던 독립전쟁론으로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는 기운이 만주 전역에 가득했다. 하지만 독립군자금 모금은 모든 독립운동단체가 피해가지 못하는 문제였다.

한편 1920년 10월 제국주의 일본군은 만주지역 한인사회의 ‘토벌’하기 위해 약 2만명의 군대를 파견하였다. 이 때 독립군들은 결사 저항하였으며, 그것은 청산리 대첩의 승전으로 나타났다. 청산리 대첩 이후 독립군들은 밀산을 거쳐 노령으로 이동하였다. 하지만 1921년 6월 자유시 참변으로 인해 다시 만주지역으로 이동하여 독립군 조직을 재정비하였다. 1922년 만주의 독립군 단체들은 남만한족통일회(南滿韓族統一會)를 개최하여 보다 효과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대한통군부(大韓統軍府)를 조직한 후 곧 이어 내부 갈등을 봉합한 후 대한통의부(大韓統義府)로 확대 개편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한통

90) 『매일신보』, 1922년 4월 8일, 「군비총단 김상술 등은 필경 공판에 부처」.

91) 위와 같음. 「김상술 등 판결문」, 1922년 8월 19일, 전주지방법원 대정11년형공제238호.

의부 조직 내의 의병 계열은 탈퇴하여 의군부(義軍府)를 조직한 뒤 상해의 임시정부와 교섭을 통해 남만주 지역에서의 군정부(軍政府)로 승인을 받았고, 1924년 8월에는 임시정부의 주만참의부(駐滿參議府)로 새로이 발족하였다.

1920년대 중반 만주지역의 독립군 단체가 통의부·참의부 등으로 분열되자 보다 효과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자치와 군사를 조직을 통합할 새로운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통의부와 참의부 등 여러 단체가 길림에서 회합하여 정의부(正義府)를 조직하였다. 같은 시기 북만주 영안현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전 북로군정서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한 신민부(新民府)가 조직되어 무장투쟁에 주력하고 있었다. 이 단체는 군사중심의 단체를 표방하였다.

이러한 독립운동단체들의 통합과 분열을 반복하는 사이 1925년 제국주의 일본과 동북군벌정권 사이에 비밀협약인 삼시협정(三矢協定)이 체결되면서 남만주 지역에서는 중국 군벌의 독립군 탄압이 거세져서 독립운동가들이 피체되는 사태가 곳곳에서 일어났다.

홍순갑은 1896년 전북 익산군 왕궁면 용화리에서 태어났다.⁹²⁾ 그는 향리 익창학교와 전주 신흥학교를 거쳐 중앙기독교청년학관, 일본 와세다 대학을 다녔다.⁹³⁾ 홍순갑은 1919년 3.1운동 직후 독립운동자금 모금을 위해 경성부 효자동에 살고 있는 이채남, 김영순과 함께 천도교 제2대 교주였던 최시형의 아들 최동회를 찾아가 표면적으로 금광채굴을 위해 길림성으로 갔다. 그곳에서 유동열을 만나 독립운동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들은 8월 초순 다시 경성으로 돌아와 군자금 모집을 계획하였으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쇄물 및 권총의 위력으로서 지방 부호를 협박하여 금품을 강요하려고 하였다. 홍순갑, 이시우, 이회로 등과 함께 단총을 입수하기 위해 김영순의 지인이었던 일본 육사 26기 출신인 조철호에게 단총을 빌렸다. 독립운동관련 인쇄물을 제조하여 경성부내 황금정 2정목 신문관에서 인쇄하였으며, 이채우는 원고를 기초하였고 군령 20매를 인쇄하여 김영순과 홍순갑은 이 인쇄물 6매를 가지고 신의주로 가서 간도지역 독립운동가 이만항에게 전해주고 다시 경성으로 귀환하였다. 게다가 이시우는 본월 17일 이 인쇄물과 권총을 휴대하고 전라북도 지방에서 활동할 것을 계획하고 장성으로 향하였는데 종로서는 바로 추격하여 체포하였다.⁹⁴⁾ 제령 위반으로 1919년 9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판결을 받

92) 국가보훈처 공훈록에는 전북 익산 금마 신동 출신으로 기재되어 있다.

93) 『동아일보』, 1929년 10월 25일.

94)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4) 참조.

고 복역하였다.⁹⁵⁾

1921년 출옥 후 그가 중국으로 망명한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1925년 신민부의 중앙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아 1922년 이후라고 볼 수 있다.⁹⁶⁾ 1927년 신민회 중앙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다음해 국민부 검사위원으로 활동하다가 하얼빈에서 체포되었다. 홍순갑은 주로 군자금을 모금하는 데 활동을 주력하였다. 북만주에 근거를 두고 독립운동을 하던 홍순갑은 연말을 이용하여 군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하얼빈 전가전 12도가 조선인의 집에서 잠복하였다. 이 소식을 접한 하얼빈 일본영사관 경찰서에서는 지난 1928년 12월 22일 정오 경찰서원 3,4명이 그 집을 급습하여 홍순갑을 체포되어 취조 후 신의주로 압송되었다.⁹⁷⁾

1929년 4월 25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되었으며, 신의주형무소에서 복역중 혹독한 고문의 여독으로 동년 10월 6일 옥사 순국하였다.⁹⁸⁾ 그가 순국하지 신의주 청년회와 신의주야소교연합회는 그의 유해를 형무소 묘지에서 신의주 공동묘지로 안장하였다. 이때 가족으로는 동생 홍순무가 참석하였다.⁹⁹⁾

김춘배(金春培)는 1906년 전북 완주 삼례에서 김창언(金昌彦)의 차남으로 출생하였다. 그는 8세부터 12세까지 향리의 사립 영신학교를 다녔다. 하지만 가계의 형편이 점점 나빠졌으며, 1920년 봄 집안은 북간도 연길현으로 이주하였다. 그는 천보산 신흥학교를 다녔으며, 이곳에서 민족적 자각과 독립운동의 의지를 다졌다. 그는 19세 때부터 정의부원으로 활동하였으며, 군자금 모금에 집중하였다.¹⁰⁰⁾ 1927년 2월 만주 흥경현에 본부를 두고 활동했던 정의부에 가담하여 권총 2정과 실탄 17발로 무장한 뒤 여섯 차례에 걸쳐 자산가를 찾아가 무장항일운동을 위한 군자금을 모금하다가 간도에 주재하고 있던 일본 영사관 소속의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그는 청진지방법원에서 징역 6년형을 언도받고 청진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1928년 7월 탈출을 시도하여 성공하였으나 재차 붙잡혀 가중처벌로 징역 1년 10개월을 받아 모두 8년의 옥고를 치르고 1934년 5월에 출옥하였다.¹⁰¹⁾

95) 『동아일보』, 1929년 1월 26일.

96) 김승학, 『한국독립사』 하권, 335쪽.

97) 『동아일보』, 1928년 12월 28일, 「합시잠복중 신민부원 피체」.

98) 『동아일보』, 1929년 10월 20일, 「신민부 중앙집행위원 洪淳甲, 신의주형무소에서 옥사」.

99) 위와 같음.

100) 『부산일보』, 1934년 11월 14일, 「희대의 총기탈취 범인 金春培」.

그는 1934년 10월 2일 함경북도 북청군 양북면 신창의 경찰주재소를 습격하여 권총 2정과 탄환 100발 및 장총 6정을 탈취하였다. 그는 일본 경찰의 추격에도 19일간 잠적한 후 10월 31일 신창역에서 경성역으로 가기 위해 기차를 타고 가다 체포되었다.¹⁰²⁾ 이때 김춘배를 동원한 경찰 수가 수백명에 달했으며, 조선총독부 경찰서에서도 드문 사건이라고 할 정도였다.¹⁰³⁾ 그는 함흥지방법원 검사국에 송치되어 검사의 취조를 받고 공판에 회부되었다. 그는 공판과정에서 군자금 3만원을 모금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진술하였다.¹⁰⁴⁾ 그는 1934년 11월 26일 함흥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언도받았다.¹⁰⁵⁾ 함경북도 경성 감옥에서 1935년 1월 서대문형무소로 이감되었다.¹⁰⁶⁾

채세운(蔡世允, 일명 蔡權宇)은 1902년 전북 옥구에서 태어났다. 일찍이 러시아 연해주로 망명하였으며 1920년 5월 이용이 이끄는 대한독립의용군 자유대대(自由大隊) 3소대장으로 활약하였으며, 1921년에는 소련 극동군(極東軍) 제2군단 소속 대한독립의용군 제3중대 제2소대장으로 근무하였다. 1921년 러시아 자유시에서 대한독립군단이 참변을 당하자 후룡강성 영안현 영고탑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조직된 신민부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1927년 10월 26일 하얼빈으로 가 하얼빈민회를 습격하여 회장 이정(李政)으로부터 민회를 해산하겠다는 각서를 받기도 하였다.¹⁰⁷⁾ 또한 북만주 영안현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신민부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혁의 명령을 받고 동지들과 함께 하얼빈에서 무기를 구입하여 신민회 본부로 옮기다가 발각되어 하얼빈 일본 총영사관경찰에 체포되어 심한 고문과 취조를 받았다. 1928년 5월 17일 대련(大連) 지방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¹⁰⁸⁾

101) 『조선일보』, 1934년 10월 22일.

102) 『동아일보』, 1934년 11월 17일, 「권총사건 김춘배 19일, 공판 개정」.

103) 『부산일보』, 1934년 11월 29일, 「조선의 귀태[鬼態] 무기징역; 김춘배[金春培]에게 판결」.

104) 『동아일보』, 1934년 11월 20일, 「군자금3만원모집」.

105) 『동아일보』, 1934년 11월 27일, 「김춘배에게 무기언도」.

106) 『동아일보』, 1935년 1월 19일, 「총기사건 김춘배 공소를 취하」. 김춘배의 권총 탈취와 군자금 사건은 1934년 만주제국 성립, 히틀러 대통령 취임, 보성전문대학 안암동 이전 등과 함께 10대 사건으로 기록되었다(『동아일보』, 1935년 4월 26일).

107) 『중외일보』, 1928년 4월 25일, 「치안유지법위반 신민부원등공판」.

108) 『동아일보』, 「1928년 5월 20일, 「最高無期에 最下가 十年 다섯 사람에게 대해 대련법원이 新民府員에 對한 判決, 李永祥 崔晋萬 蔡世允 朴秉燦 黃德煥」.

6. 맺음말

전북출신으로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이들은 시기적으로 각 운동단체에서 다양하게 활동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신홍무관학교는 우당 이회영 가문과 석주 이상룡 가문의 결합하여 만든 독립운동 인재양성 요람으로 알려져 있다. 두 인물이 상징적인 의미가 가장 크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신홍무관학교를 운영하고 이끄는 데 이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하였을 것이다. 전북출신의 강한년이 주목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는 옥구출신으로 일찍부터 만주로 망명하여 신홍무관학교 설립 초기부터 운영 및 지원에 크게 관여하였던 것 같다. 강한년은 신홍무관학교의 학회지라고 할 수 있는 신홍교우보, 신홍학우보 발간과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신홍교우보와 신홍학우보는 발간과 함께 해외 한민족 거주지로 발송되었는데,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던 강한년은 그의 처남이었던 배헌을 신홍무관학교에 입학시켜 독립운동의 중추적인 인물로 키워내었다.

둘째 청산리 전투에 참여한 전북인들의 활동을 들 수 있다. 북로군정서 군사위원이었던 고평은 일찍이 만주로 망명하여 대중교 독립운동단체인 중광단과 대한군정서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청산리 대첩의 직접 참전하였다. 그와 함께 청산리 대첩에 참여했던 전북출신의 강문주 의군부에 소속되어 있었다. 청산리 대첩 이후 독립군들이 자유시까지 이동했을 때 동행하였다.

셋째 군자금 모금에 전북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군자금은 독립운동단체가 조직을 운영하는데 인적자원과 함께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비정규군의 성격을 띠고 있는 독립운동 단체에서 전북출신들은 적극적인 군자금 모금에 참여하였다.

넷째 1920년대 삼부에서 활동했던 전북출신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홍순갑과 김춘배에 주목하였다. 홍순갑은 신민부에 참여하기 이전부터 국내외에서 줄기차게 독립운동을 전개한 인물이며 김춘배는 1934년 동아일보에서 선정한 그해 10대 국내외 사건의 주인공이었다.

이처럼 전북출신들이 만주에서 활동한 예는 비교적 많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다. 지역 출신별로 정리하는 작업은 독립운동단체의 속성을 파악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만주는 독립운동가들의 무대이지만 밀정들의 무대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과 혈연이 강조되기도 하였다. 전북출신들은 다양한 독립운동단체에서 활동하였다. 강한년과 배헌을 제외하고 지연과 혈연을 통해

독립운동에 참여한 예는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지연과 혈연을 강조할 만큼 전북출신 독립운동가들은 만주의 다양한 독립운동단체에서 활동하였다. 만주지역뿐만 아니라 중국 관내 지역에서 활동했던 전북출신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연구는 추후 연구를 기약하려고 한다.

논문접수일: 2021. 04. 17. / 심사개시일: 2021. 05. 18. / 게재확정일: 2021. 06. 08.

참고문헌

- 『독립신문』
『東亞日報』
『개벽』
『改正 大韓統義府 財政條例』,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滿洲ノ部(39)』
(機密受제711호-關機高收제13646호-1, 1924.6.28).
『極東鮮人統一機關組織ニ關スル件』,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鮮人ト過激派(4)』
(高警 제3172호, 1923.9.29).
『不逞鮮人カ組織スル教育會ニ關スル件』,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支那各地(2)』
(高警 제3194호, 1922.10.9).
『北京在住朝鮮人ノ最近狀況報告ノ件』, 『朝鮮人ニ對スル施政關係雜件-一般ノ部(2)』
(公第92호, 1924.3.6).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滿洲ノ部(39)』, 『大韓統義府 行政委員 非常會議
開催』(機密受제763호, 1924.7.8).
국사편찬위원회, 2001, 『韓國獨立運動史 資料』 37.
국사편찬위원회, 2003,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39.
국사편찬위원회, 2004,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40.
국사편찬위원회, 2005,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41.
김승학, 1965, 『한국독립사』, 독립문화사.
김영호 편, 1975, 『지산외유일기』, 『항일독립운동가의 일기』, 서문당.
김주용, 2018, 『한국독립운동과 만주-이주, 저항, 정착의 접이지대』, 경인출판사.
김춘선, 2000, 『발로 쓴 청산리전쟁의 역사적 진실』, 『역사비평』 52호, 251-278쪽.
박결순, 1990, 『대한통의부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권.
박명진, 2003, 『대중교독립운동사』, 『국학연구』 8권.
반병률, 2009, 『1920년대 전반 만주·러시아지역 항일무장투쟁』, 독립기념관.
서중석, 2001,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신용하, 1988, 『봉오동전투와 청산리독립전쟁』, 『한민족독립운동사』 4, 국사편
찬위원회.
신주백, 2005, 『1920~30년대 중국지역 민족운동사』, 선인.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2011, 『국역 백하일기』, 경인문화사.

- 양만정, 1988, 『抗日 獨立 運動家 高平의 生涯와 業績』, 『全羅文化研究』 2집.
- 원병상, 1976, 『신흥무관학교』, 『독립운동사자료집』 10권.
- 이강훈, 1990, 『청사에 빛난 순국선열들』, 역사편찬위원회.
- 이극로 지음, 조준희 옮김, 2013, 『고투40년』, 아라, 51-52쪽.
- 이기동, 1982, 『비운의 군인들』, 일조각.
- 이현주, 2010, 『한국광복군 총사령 지청천』, 역사공간.
- 조필균, 2011, 『항일무장독립전쟁의 군사사학적 연구-청산리 전역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지복영, 2005, 『역사의 수레를 끌고 밀며-항일무장독립운동과 백산 지청천 장군』, 문학과지성사.
- 채영국, 2007, 『1920년대 후반 만주지역 항일무장투쟁』,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채영국, 2009, 『1920년 후반 만주지역 항일무장투쟁』,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 2012, 『독립운동가의 삶과 회상-독립운동가 구술자료 총서 1』, 독립기념관.
- 한국종교협회, 1979, 『백강회고록』.
- 한시준, 2011, 『신흥무관학교와 한국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0집, 5-31쪽.

<Abstract>

A Study on the Independence Activists from Jeon Buk Who Were Active in Manchuria

Kim joo yong*

This article analyzes the activities of independence activists from North Jeolla Province who were active in Manchuria. They not only participated in the operation of Sinheung Military Academy at the vanguard of the armed struggle, but also in the battle of Cheongsan-ri, which was the most outstanding victory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Their research has received little attention so far. In this article, they tried to restore the activities of Manchuria during their entire lives. Kang Han-nyeon, who actually operated Sinheung Military Academy, and Gopyeong and Gang Mun-ju, who led the Battle of Cheongsan-ri to victory, were to be placed at the forefront of history. Independence activists from North Jeolla Province played a leading role in various independence movement groups that were active in Manchuria in the 1920s. In particular, he worked hard to maintain the organization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by going back and forth from Korea to raise military funds.

Key Words : Jeonbuk, Manchuria, Kang Han-nyeon, Gang Mun-ju, Gopyeong,
Raise military funds

* Assistant Professor, Wonkwang University